

# 성 유대절 베드로

#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pd.org](http://www.cdsp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나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좌희선 (보노사)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손영모 (가브리엘)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토요일	오전 6시	고 해 성 사 주 일 미사 전 30분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미사 전 15분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 아 세 례 출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관 련 혼 배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① **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련 본당 지침 안내**

- 정부 방역단계가 상향조정되어 본당 방역 수칙도 조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는 항상 올바르게 착용하십시오.</li> <li>✓ 12월 18일(금)까지 평일 오후 7시 저녁미사는 없습니다.</li> <li>✓ 성전소독을 위해 미사 후 바로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li> <li>✓ 성당 내 모든 행사 및 소모임은 중지합니다.</li> <li>✓ 고해성사는 당분간 없습니다.(판공성사 추후 재공지)</li> </ul>
--------------------------------------------------------------------------------------------------------------------------------------------------------------------------------------------------------------------------------------------

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 한국인 최초의 사제이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성인’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국 천주교회의 차원의 희년으로 선포하며, 희년 기간은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 1주일) ~ 2021년 11월 27일(대림 제 1주일 전날)로 지정되었습니다.

① **심욱 베드로 신부님 피정**

- 심욱 베드로 신부님께서 12월 2일(수)~12월 9일(수)까지 피정이오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① **성시간: 12월 3일(목) 오후 7시**

① **성모신심미사: 12월 5일(토) 오전 6시 미사**

① **성탄 대축일 제대꽃 봉헌**

- 예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며 제대 장식을 위하여 꽃봉헌 하실 단체나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림절 저금통 배부 안내 (2021년 1월 31일 제출)**

- 대림절 저금통을 성전 앞 로비에 비치해두었습니다. 모금액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전달됩니다.

① **대림특강 일시 및 주제**

<b>대림특강 1: 12월 8일(화) 오후 8시, 2층 대성전</b> <b>“코로나 시대의 건강과 희망 찾기”</b> 이나미 교수 (서울대정신의학과)
<b>대림특강 2: 12월 15일(화) 오후 8시, 2층 대성전</b> <b>“코로나 19와 공동체의 삶”</b> 정석 예로니모 교수 (서울시립대)

① **수험일 학부모 피정 (11월 29일 오늘 접수마감)**

- 수험생 학부모 피정: 12월 3일(목) 오전 8시 30분~
- 문의: 백 로사 (010-8651-8000)

① **군복무자 성탄 선물보내기(11월 29일 오늘 접수마감)**

- 본당 신자 중 군복무 중인 자녀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고자 하오니 사무실에 비치된 주소록에 정확한 부대 주소, 이름, 계급, 전역날짜, 부모님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복무자들 성탄 선물 보내기에 빨랑카를 접수받습니다.)
- 문의: 채 세레나 (010-2714-9295)

① **사랑의 연탄나눔 (연탄 1만장 모금, 1장당 800원)**

- 문의: 현 베로니카 (010-7169-7025)

① **제 2회 언택트 청년 특별 콘서트 '청고마비'**

- 주제: 공정이란 무엇인가: 너 공정? 나 불공정!!
- 일시: 12월 1일(화) 오후 7시 30분
- 출연: 류호정(국회의원), 김누리교수, 이신혜(국무총리비서실행정관)
- 장소: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유튜브, ZOOM
- 문의: 이 미카엘라 (010-9985-5452)

① **올 한해도 잘~읽었다!(11월 29일 오늘 접수마감)**

- 올 한해 마치면서 전신자 대상으로 본당 추천 도서를 읽으신 분들의 ‘느낌! 한마디’를 받습니다. 추후 뽑히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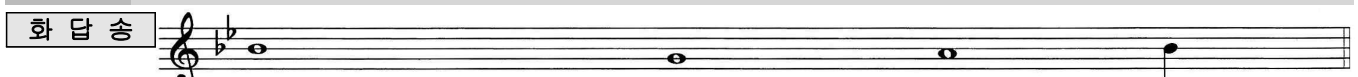
올해 추천도서 목록	
칠층산	나이들의 품격
엘리아와 함께 걷는 40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내가슴에 살아있는 선물	

① **연말정산 기부금 안내**

- 교무금 통장에 기재된 내역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일헌금, 미사에물 등 제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12월 20일(주일)까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무금 통장에 명기된 분으로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오니 책정자 변경하실 분들은 미리 변경하십시오.(12월 20일이후에는 변경 불가능합니다.)</li> <li>-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십시오. (* 1회 제출 시 5년간 유효)</li> <li>-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교무금 납부하는 분들은 꼭 <b>책정자의 이름과 세레명</b>을 기입하십시오.</li> </ul>
--------------------------------------------------------------------------------------------------------------------------------------------------------------------------------------------------------------------------------------------------------------------------------------------------------------------------

성가번호 입 당: 91    예물준비: 성가정성가, 216    성 체: 180, 182    파 견: 청담동본당가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48)

서평\_「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5)\_정이라는 끈

1. 세례로 다시 태어난 삶

50세를 훌쩍 넘은 최미라 자매는 유방암이 악화되어 집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에 있다. 그 자매의 집으로 찾아간 수녀님은 이미 가슴이 꺾여 문드러져 구멍이 나 있고, 상처에서는 구더기까지 기어 나오는 그녀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병원을 가지 못하고, 홀로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매의 고통이 측은해서 급히 소독과 처치를 한다.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연락할 가족이나 친척은 없는지 묻지만 그 자매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는다.

7남매 맏딸인 자매는 18살 어린 나이에 동네 청년과 몰래 연애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들켰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인지라 마당에 끌어내 놓고 머리채를 뜯고 온몸에 몽둥이질을 해댔다. 그날 밤, 그 자매는 아버지가 너무도 무서워 바들바들 떨며 집을 도망쳐 나왔다. 갈 곳이 없었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녀를 받아 준 곳은 술집뿐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 술집 아가씨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집이 그리워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무서웠고 가족이 술집에서 일해 왔던 자신을 받아줄리 만무할 것 같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수녀님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앞에 죄인이라며 그 자매를 설득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교리를 해주었다. 그 자매는 열심히 교리공부를 하여 드디어 신부님에게 세례성사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고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40년이나 보지 않고 살아온 가족을 보고 싶어 했다. 수녀님은 18세 소녀의 감정에 간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지만 무서운 아버지에게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매를 또 다시 설득하여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자매의 형제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남동생과 여동생 3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집을 나간 누나, 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오지 못했다. 그 자매는 자기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누어주어 자신이 충실히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동생들에게 모두 천주교 신자가 될 것을 약속 받았다. 그 자매는 그렇게 형제들을 만나고 1주일 뒤에 선종하였다.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딸로 세상을 떠났다.

2. 정이 끈

인간관계에서 빗어지는 정은 끊는 것이 아니다. 죽음마저 정을 끊을 수 없다. 수녀님은 자신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가 죽음에 임할 때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는데, 남겨진 사람들과 정을 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암이 발병한 후 제주도에 있는 한 본당에서 1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신자들과 깊은 정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떠나기가 어려웠다고 고백한다. 기도 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 “딸아! 왜 너는 정을 끊으려고 그리 애를 쓰느냐? 네가 세상에서 느낀 정을 모두 안고 나에게 오너라.” 수녀님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한다. 형제들의 정을 모두 가슴에 담고 하늘로 돌아간 자매는 하느님의 축복 안에 편히 쉬고 있을 것이다.

2020. 11. 29 청담동 성당 김민수 이냐시오 신부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11월 18일 ~ 11월 24일)

봉헌 예물		교무금 납부 현황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7,462,600원	총 세대수			2,547세대		
시설보수 2차	3,242,500원	총 납부세대			1,258세대		
교무금	26,235,000원	지난 주 납부세대			8세대		
성소후원금 (6건)	127,000원	총 납부율 (%)			49.4%		
감사 헌금		성탄 꽃 봉헌					
김 사라	500,000원	김 라파엘	50,000원	변 모니카	10,000원	배 요셉	100,000원
정 미카엘라	200,000원	김 로사리아	100,000원	이 미카엘	100,000원	정 스테파노	50,000원
강 아네스	200,000원	-	-				
합계: 1,050,000원		합계: 260,000원					